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8월

(경제대책 · 추가금융완화 · 초엔고)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부진 장기화	2
2.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6
3. 엔고·저주가·마이너스 금리 확대	9
4.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증가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경제대책·추가금융완화·초엔고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	17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19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주요 경제 일정	23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09.2	110.5	-	
GDP증가율(연율,%)	△0.0	0.5	△1.7	2.0	△1.7	2.0	0.2p)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16.3	17.9	17.2	20.1	15.8p)	-	-	-
	공공투자	24.5	23.4	4.1	5.0	6.1	6.5	4.3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4.8	17.6	21.8	19.6	12.7	3.9	5.2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2.6	0.5	0.2	0.0	0.1	△0.2	△0.1	0.1	△0.1	-
	전년동기비	2.6	0.5	0.1	△0.1	0.0	△0.1	△0.4	△0.4	△0.5	-
실업률(%)		3.6	-3.4	3.3	3.4	3.2	3.2	3.2	3.2	3.1	-
수출(조엔)	73.1	75.6	18.8	19.0	18.8	17.5	17.0	5.1	6.0	5.7	
수입(조엔)	85.9	78.5	19.1	20.0	19.0	17.2	15.5	5.1	5.3	5.2	
무역수지(조엔)	△12.8	△2.9	△0.3	△1.0	△0.2	△0.3	1.5	△0.04	0.7	0.5	
경상수지(조엔)	3.9	16.4	3.8	5.0	3.6	5.9	4.6	1.8	1.0	-	
환율	달러	105.8	121.1	121.4	122.3	121.5	115.3	108.1	109.2	105.5	103.9
	원화(100엔)	996	935	905	957	953	1,043	1,076	1,075	1,108	1,099
금리(10년물,%)	0.55	0.36	0.40	0.40	0.31	0.051	-0.121	-0.107	-0.160	-0.256	
주가(닛케이)	15,460	19,203	20,058	19,474	19,035	16,843	16,393	16,613	16,069	16,168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경기판단) 경기부진 장기화

- '16.6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0.5로 전월비 1.3p 상승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4개월만에 하락 반전

- '16.6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5,135억 엔 흑자

- '16.7월 수출은 5조 7,284억 엔, 수입은 5조 2,149억 엔

(환율) 엔고 가속

- '16.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3.9 엔으로 전월비 1.5%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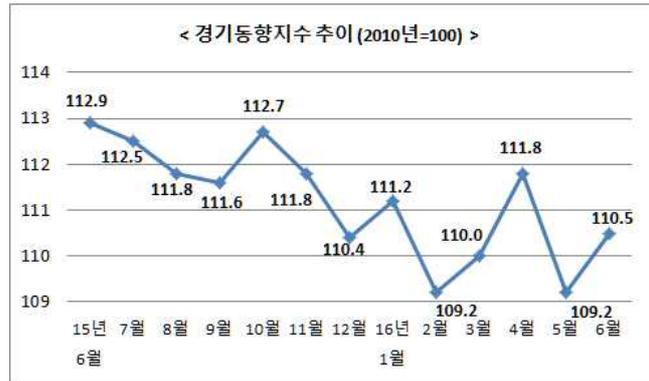
* '16.7월 엔/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99엔으로 전월비 0.8%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부진 장기화

□ (경기기조 판단)

- 일본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설비투자과 수출의 부진 및 소비의 역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다만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6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년=100)는 110.5로 2개월 만에 전월보다 1.3p 상승



자료 : 내각부

- 구마모토 지진으로 생산이 중단된 승용차의 증산 등으로 생산과 출하 지수가 상승
- 일본내각부는 담보상태에 있다는 전월까지의 경기기조판단을 그대로 유지

□ (전 망)

-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6월의 경기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마인드가 악화되어 설비투자과 소비, 신규 고용 등이 일부 보류될 가능성은 있음
- 일본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급격한 엔고임
 - 이 같은 엔고 요인을 고려하여 일본정부는 금년 1월 1.7%로 전망했던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수정
 - 경제활동수준은 잠재생산량을 하회하는 상태가 계속될 전망

<GDP>

- 일본 내각부가 8월 15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실질GDP(속보치)는 전기비 0.048% 증가, 연율로는 0.2% 성장,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세계경제의 침체와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설비투자와 수출의 부진 및 소비의 역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전기비 0.048%의 GDP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3%
 - 개인소비는 전기비 0.2% 증가로 1분기에 이어 플러스, 자동차와 TV의 구입이 소비증가에 기여
 - 주택투자는 5.0% 증가로 3분기 만에 전분기를 상회,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으로 주택론 금리가 하락한 것이 플러스로 작용
 - 공공투자도 2.3% 증가,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부흥수요가 GDP성장에 기여
 - 한편 설비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세계경제의 정체와 엔고 등 금융시장의 동요 영향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음
- GDP성장에 대한 외수의 기여도는 -0.26%
 - 수출은 전기비 1.5% 감소. 상품수출의 감소 외에도, 방일외국인의 소비가 3년 반만에 감소했는데 구마모토 지진으로 외국인들이 방일을 보류한 영향도 있음
 - 수입은 의약품과 반도체장치 등이 부진함에 따라 전기비 0.1% 감소
- 한편, 일본정부는 금년 1월 1.7%로 전망했던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하향 수정했음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전기비			△0.6	0.5	1.2	△0.4	0.5	△0.4	0.5	0.048
전기비연율	△0.0	0.5	△2.4	2.2	4.9	△1.7	2.0	△1.7	2.0	0.2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2	0.6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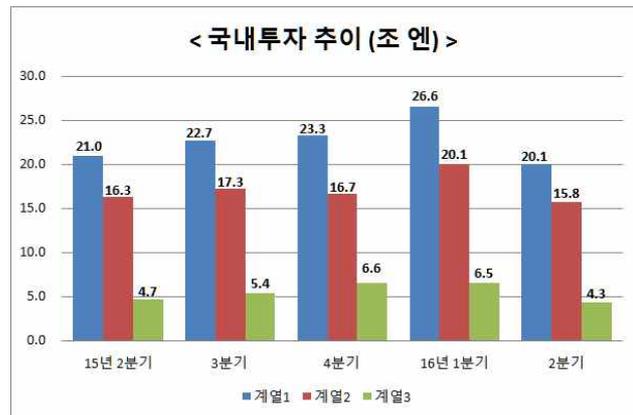
□ '16.2분기 국내투자 GDP의 16.1%

○ '16.2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24.4% 감소한 20.1조 엔으로 GDP의 16.1%

□ (민간설비투자)

○ '16.2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1.6% 감소한 15.8조 엔, 국내 투자의 78.6%를 차지

○ 실질기준으로는 엔고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기비 -0.4%, 2분기 연속 감소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6월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 제조업에서는 6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5년 만에 감소 예상

-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6월 기계수주는 3개월 만에 전월비 8.3% 증가로 반전

□ (공공투자)

○ '16.2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33.5% 감소한 4.3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1.4%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견조세를 유지

- 6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0.6% 증가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투자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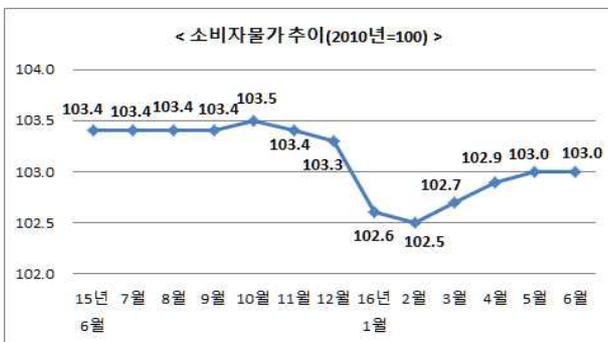
□ '16.6월 소비자물가 4개월 만에 하락

- '16.6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0(2010년= 100)로 4개월 만에 전월비 0.1% 하락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5%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0.4% 상승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당분간은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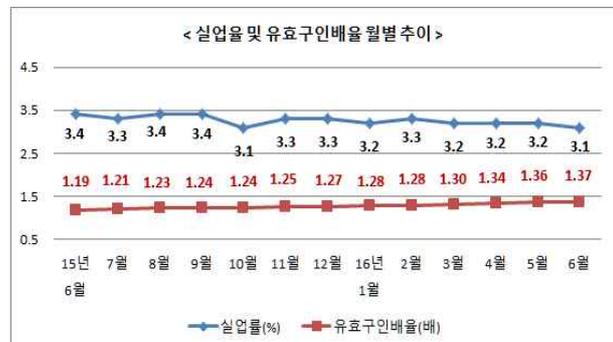
<실업률>

□ 실업률 최저수준,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6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3.1%
 - 이는 20년 11개월만의 최저 수준으로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노동수급의 꺾박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
 -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47만 명 증가한 반면, 고용자수는 1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완전실업자 수는 14만 명이 감소한 210만 명
- '16.6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7배로 전월보다 0.01p 상승, 여전히 고용수요의 증가를 반영
 - 방일객의 증가를 배경으로 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구인 수가 증가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총 합)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흑자 감소

- '16.7월 무역수지는 5,135억 엔 흑자로 전월비 흑자폭 축소
 - 수출 부진이 흑자 감소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351억 엔에서 2,660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對 미국 무역 흑자는 전월의 6,184억 엔에서 5,940억 엔으로 축소

< 2016년 7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0	-7.4	18.3	5.7	-14.0	-5.0	40.2	-9.0
수 입	5.3	-18.8	3.9	5.2	-24.7	-1.9	37.9	-18.8
수 지	0.7	-	-	0.5	-	-25.9	2.3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7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7월 수출은 전월대비 5.0% 감소한 5조 7,284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2.7% 감소
- 5대 수출품목, 품목별 수출순위는 모두 전월과 동일
 -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철강의 수출증가폭이 5.0%로 가장 큼
 -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의 수출감소폭이 -3.0%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한국과 EU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아세안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4.4%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2.5% 증가

< 2016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9,952	-7.5	33.7	9,650	-11.5	-3.0	64,134	-4.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2,958	-11.3	16.0	3,035	-11.4	2.6	20,541	-9.6
3	자동차부품	2,864	-0.8	16.2	2,878	-9.2	0.5	19,213	-5.3
4	철강	2,323	-24.2	1.0	2,438	-21.7	5.0	16,610	-26.7
5	원동기	2,004	-6.7	19.9	1,949	-15.9	-2.7	13,777	-11.2

자료 : 재무성

< 2016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2,180	-6.5	25.6	11,825	-11.8	-2.9	82,258	-7.3
2	중국	10,438	-10.0	15.7	10,299	-12.7	-1.3	69,206	-9.5
3	ASEAN	8,903	-8.4	13.7	8,510	-13.7	-4.4	59,525	-13.1
4	EU	6,627	-0.4	14.7	6,655	-6.5	0.4	47,093	2.4
5	한국	3,989	-13.6	5.2	4,090	-9.2	2.5	28,262	-12.4
6	대만	3,702	-7.9	10.1	3,587	-11.6	-3.1	23,984	-8.9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7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7월 수입은 전월비 1.9% 감소한 5조 2,149억 엔

- 수입물량도 전월비 0.1% 감소

○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 대신에 의류 및 동부속품이 5대 수입품목에 포함

-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의류 및 동부속품의 수입증가폭이 16.8%로 가장 큼

-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감소폭이 -1.7%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호주와 EU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2.7% 감소한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순위는 전월의 5위에서 6위로 복귀

< 2016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4,640	-31.2	3.3	5,054	-42.6	8.9	30,936	-39.0
2	의약품	2,379	1.2	23.2	2,373	-11.3	-0.3	16,192	4.4
3	의류 등 부속품	2,000	-12.3	3.6	2,336	-17.9	16.8	17,724	-2.8
4	액화천연가스	2,054	-43.9	12.1	2,249	-43.2	9.5	18,965	-46.0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075	-18.2	9.1	2,040	-23.0	-1.7	14,581	-17.2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3,789	-12.4	5.8	12,959	-21.7	-6.0	84,740	-23.6
2	ASEAN	8,245	-17.0	8.2	7,724	-25.8	-6.3	50,539	-28.6
3	EU	6,507	-6.6	-0.1	6,667	-15.7	2.5	40,363	-16.5
4	미국	5,996	-17.2	-4.0	5,885	-15.2	-1.9	36,313	-24.8
5	호주	2,226	-32.4	-2.6	2,590	-28.3	16.4	15,495	-39.7
6	한국	2,257	-19.3	3.1	2,197	-20.5	-2.7	13,270	-32.3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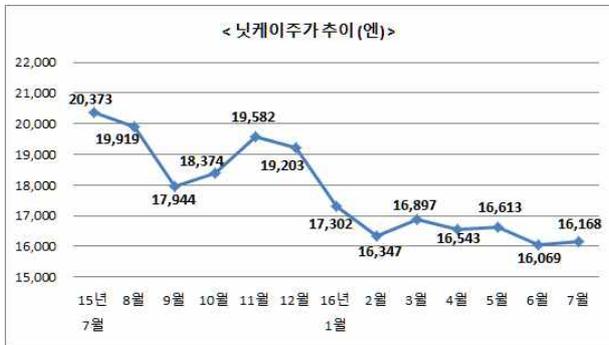
3. 엔고 · 저주가 · 마이너스 금리 확대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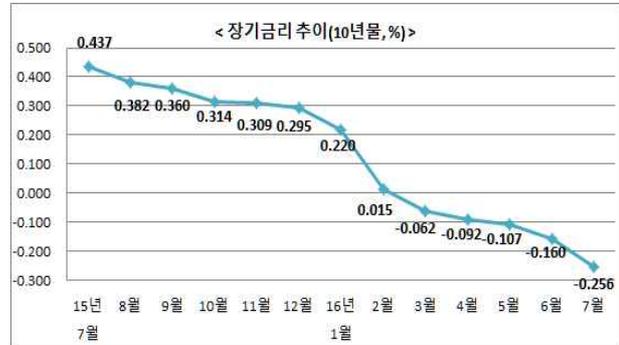
- '16.7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6% 상승한 16,168엔

□ (금 리)

- '16.7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영향이 본격 화됨에 따라 전월의 -0.160%에서 -0.256%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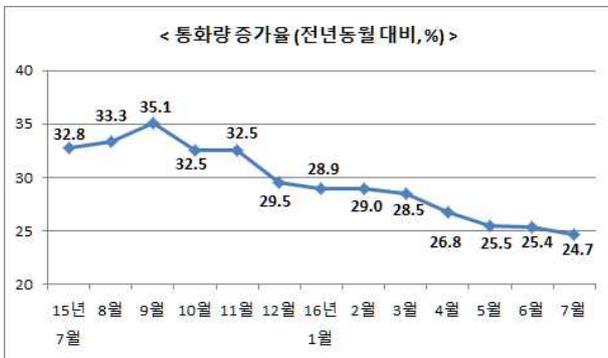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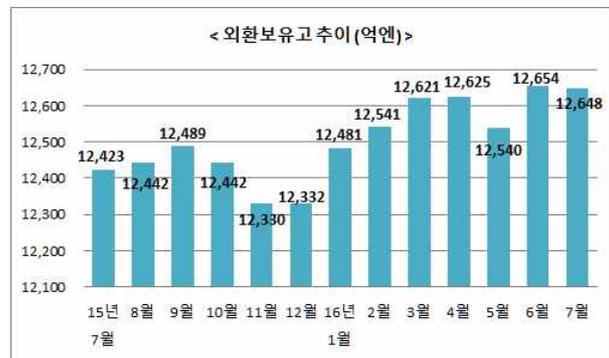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7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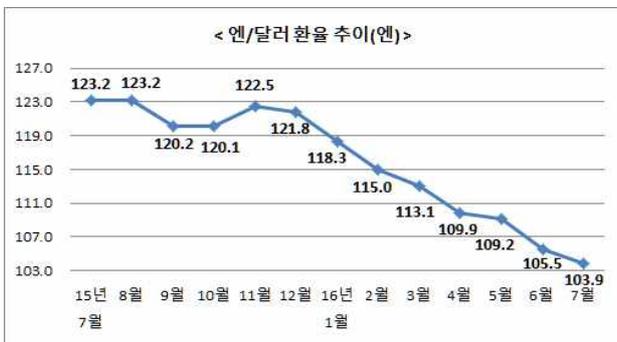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7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5% 하락한 103.9엔(엔고)
- ‘16.8월 들어서는 엔고가 가속, 7월 24일 기준 100.35엔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론 후퇴,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이 엔고환경을 조성
- ‘16.7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99원으로 전월의 1,108원에 비하여 0.8%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증가

□ (동 향) 북미와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를 주도

- ‘16년 6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1,853억 엔으로 전월비 33.4%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5월	6월	1-6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127,675	38,882	51,853	323,923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35.0	5.3	33.4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13.7	-25.7	-8.2	7.0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對 유럽 직접투자는 2조 7,620억 엔으로 17.5% 증가
- 對 미국 직접투자는 1조 3,691억 엔으로 전월비 92.2% 증가
- 대양주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1,740억 엔으로 282.4%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468억 엔으로 91.8%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1분기		2분기		6월		1-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대세계	696,396	-11.8	196,248	-9.8	127,675	-35.0	51,853	33.4	233,188
아시아	141,593	19.0	22,851	-28.6	18,329	-19.8	6,217	5.8	35,306
중 국	14,659	1.1	3,179	-16.8	3,230	1.6	1,213	16.6	5,369
한 국	4,714	-20.6	721	-39.6	900	24.8	468	91.8	1,377
북 미	237,283	-2.9	81,748	-8.0	28,029	-65.8	14,007	79.7	101,981
미 국	230,435	-2.9	80,800	-7.8	26,166	-67.7	13,691	92.2	99,846
중남미	22,758	49.4	3,574	-42.5	1,844	-48.4	1,109	59.1	5,821
유 럽	269,749	-30.4	83,122	-2.2	72,598	-12.7	27,620	17.5	132,209
대양주	19,126	1.2	2,904	-8.9	3,190	9.8	1,740	282.4	5,639
중동	1,805	46.9	815	101.2	433	-46.9	199	86.0	1,141
아프리카	6,843	7.3	1,225	-32.6	2,153	75.8	961	117.4	2,935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6년 들어서도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높은 수준을 유지
 - 2017년 1-7월 기간중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M&A는 5조 9,123억엔
 - 소프트뱅크의 영국 반도체설계기업 암홀딩스 인수(3조 3천억엔), 고마츠사의 미국 광산기계업체 인수(3천억엔)등 대형 M&A가 두드러짐
 - 그 배경으로는 세계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설비투자보다는 M&A가 단기간에 성장전략으로 연결시키기가 쉽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증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경제대책 · 추가금융완화 · 초엔고

- 일본은행이 7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금융완화를 결정한데 이어, 일본정부도 8월 2일 각의에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결정
- 그러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8월 18일 동경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환율이 99엔 63전까지 급락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공조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음

1) 경제대책

□ 배경

- 일본정부는 현재 일본경제가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력의 부진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여, 고용소득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판단
- 이에 내수를 지탱해주는 동시에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으로서, 산업구조개혁, 노동방식과 노동시장의 개혁, 인재육성의 일체개혁을 추진

□ 주요 내용

- 이번 경제대책은 당면한 수요환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억총활약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시책이 중심
 - ①일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가속화, ②21세기형 인프라 정비, ③영국의 EU탈퇴에 따른 불안정성 등의 리스크에 대응 및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지원, ④구마모토 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및 안전, 방재대응 강화 관련 세부시책을 담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28조 1,000억 엔 규모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결정. 성장력을 높일 계획
- 경제대책 발표 후 아소 재무상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재정 및 금융에 관한 정책협력을 확인.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를 재가속시켜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완전 탈출을 목표
-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는 크기로는 과거 3번째이며 아베정권하에서는 최대
 - 중앙정부와 지방의 직접세출(마중물)은 7.5조 엔, 이중 4조 엔을 2016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충당할 계획
 - 경제대책에 의한 2016-2017년도의 실질 GDP증대효과는 1.3%로 예상
-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제약 때문에, 일본정부는 제 2의 예산이라 불리는 재정투융자를 6조엔 정도 계상하고 있음. 재정투융자로 경제대책에 대한 재정조치의 거의 절반가량을 충당하는 셈
 - 재정투융자는 용자처로부터의 자금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로 계상되지 않음. 정부가 재정건전화 지표로 삼고 있는 기초적 재정수지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경제대책에서는 노동방식의 개혁을 최대도전이자 구조개혁의 1순위 대상으로 설정
 - 특히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급료를 지불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실현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 비정규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또 장시간노동의 시정이나 재택근무의 추진 등 여성의 노동참가로 이어지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 육아와 간병 제도 정비, 보육사와 간병직원의 임금인상을 추진. 육아와 간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

-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은 개인소비와 민간투자가 힘을 잃고 있는데다. 영국의 EU탈퇴 결정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음
 - 경제대책의 근간을 노동방식 개혁과 산업구조 개혁에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임
- 경제대책은 추가경정예산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많음
 - 육아와 간병은 과거 일과성의 대응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더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명기
- 실업율과 유효구인배율은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이래 크게 개선되었으나, 비정규사원의 비율은 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에 비정규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결의를 명기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실현과 장시간노동의 지정 등 노동제도개혁을 추진할 방침을 담음
- 산업구조개혁은 생산성의 향상에 중점을 둬.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IoT와 인공지능(AI)등 제 4차 산업혁명을 실현
 - TPP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대, 일본기업이 해외수요를 확보토록 함
- 사업규모로 보면, 인프라 정비 관련 10.7조 엔과 중소기업과 지방대책 관련 10.9조 엔이 태반을 점함

2) 추가금융완화

□ 배경

-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결정으로 일본의 기업과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28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과 연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 주요내용

- 일본은행은 7월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상장투자신탁(ETF)의 매입액을 연간 6조엔으로 배증하는 추가금융완화를 결정
 - 추가금융완화는 2016년 1월에 결정한 마이너스금리 도입 이후 약 6개월만으로 연간 3.3조엔의 ETF를 거의 배로 늘려 추가하락 방지와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준금리는 현행 -0.1%로 동결된 동시에 본원통화규모도 연간 80조엔 늘리는 현행정책을 유지
- 한편 일본은행은 9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이차원완화 효과를 검증하고 물가목표 2년 시한을 철회할 방침

3) 평가 및 전망

□ 경제대책

- 일본정부가 결정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은 노동방식 개혁과 산업구조개혁 등 새로운 시점을 담고는 있으나 대책의 핵심이자 경제계가 전부터 요구해온 탈시간급제도나 해고에 대한 금전해결 등의 과제는 다루고 있지 않은데다, 종래형의 공공사업도 적지 않음
 - 구미에 비하여 60%정도에 그치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책은 부족.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급료를 지불하는 「탈시간급」 제도는 관련법안이 2년 계속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음
 - 또 재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금전해결제(노동자 측이 신청하는 일을 전제로 기업이 금전을 지불하는 일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는 제도)의 도입도 후생노동성에서의 논의가 정체상태에 있음
 - 나아가 개인이 숙련도를 높여 성장산업으로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노동시장이 탄생되는 기운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

□ 추가금융완화

- 긍정적인 평가로는 노무라증권이 "일본은행이 ETF 매입을 증액한 것은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일정한 안정감을 가져다준다"고 평가
 -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최고 23,500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완화의 내용과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산케이신문은 "이번 추가 완화로 금융 정책의 모두 나온 것 같다"고 지적.
 - 추가완화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서 동경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당 102엔대까지 하락

□ 종합

- 경제대책은 불충분한 아베노믹스의 재출발을 상징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28조 엔의 사업규모를 민간수요를 환기시킬 목적이나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는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
 - 단기대책만으로는 소비와 투자를 점화시키기 어려우며, 재정과 금융정책의 연계도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개혁이 동반될 때 비로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
- 그러나 시급한 것은 대규모의 경제대책과 추가금융완화의 공조에 더하여 초엔고에 대응하는 것임. 90엔대의 초엔고는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려 수익성과 설비 투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다만 9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강도 높은 추가금융완화를 실시하는 경우 초엔고세가 꺾일 가능성은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확대

□ (총 합)

- '16.7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147백만 달러 증가한 1,892백만 달러
 - 대일 수출의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 7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7%에서 5.1%로 상승한 동시에, 대일 수입의존도도 전월의 11.5%에서 11.9%로 상승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도 전월의 7.6%에서 8.1%로 상승

< 2016년 7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150	-3.6	5.3	2,081	-2.1	-3.2	13,588	-12.0
대일 수입	3,894	-2.9	7.2	3,973	0.7	2.0	26,010	-6.4
무역 수지	-1,745	-36	156	-1,892	72	147	-12,422	84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7월 대일 수출은 2,081백만 달러로 전월비 3.2% 감소
 - 그러나 대일수출의 감소폭은 총 수출의 감소폭 -10.3%에 비하면 적은 편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6월	-3.6	5.3	-2.7	13.8	-18.8	3.9
2016.7월	-2.1	-3.2	-10.3	-10.3	-24.7	-1.9
2016.1-7월	-12.0	-	-10.1	-	-18.8	-

○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산업용전자제품이 순위 2위에서 5위로 밀린 반면, 광물성연료는 2위 자리를 되찾음

- 대일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증가폭이 12.9%로 가장 큼
- 대일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 감소폭이 -31.6%로 가장 큼

< 2016년 7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150	-3.6	5.3	2081	-2.1	-3.2	13,588	-12.0
1	철강제품	241	-3.7	-6.6	269	11.6	11.6	1,699	-3.0
2	광물성연료	171	-41.1	-5.0	193	-15.2	12.9	1,123	-46.1
3	전자부품	165	-19.0	12.2	146	-30.7	-11.5	1,046	-24.0
4	정밀화학제품	137	-3.8	7.0	146	19.6	6.6	831	-0.8
5	산업용전자제품	177	-8.3	71.8	121	-1.1	-31.6	785	-50.2
6	수송기계	123	19.5	-15.2	117	-2.1	-4.9	833	15.5
7	석유화학제품	116	-23.2	14.9	115	-11.2	-0.9	692	-18.0
8	기계요소공구·금형	97	22.5	-1.0	98	10.2	1.0	646	15.3
9	금속광물	113	38.5	14.1	87	4.0	-23.0	604	0.3
10	농산물	84	-5.9	2.4	84	0.4	0	539	-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7월 대일수입은 3,973백만 달러로 전월비 2.0%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이 13.6%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6.6월	-2.9	7.2	-7.7	3.0
2016.7월	0.7	2.0	-13.6	-13.6
2016.1-7월	-6.4	-	-13.4	-

○ 대일수입도 전월과 비교하여 10대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밀기계의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올라섬

- 대일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증가폭이 42.2%로 가장 큼

- 대일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기초산업기계의 감소폭이 -12.4%로 가장 큼

< 2016년 7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6.6월			2016.7월			2016.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3,894	-2.9	7.2	3,973	0.7	2.0	26,010	-6.4
1	철강제품	482	-7.3	16.4	490	6.4	1.7	2,997	-15.7
2	전자부품	409	-14.2	-14.4	484	-7.5	18.3	3,400	-4.0
3	정밀기계	256	32.8	-0.4	364	49.3	42.2	1,730	-0.5
4	정밀화학제품	359	13.5	14.7	334	6.9	-7.0	2,334	4.1
5	석유화학제품	328	-21.6	1.2	306	-28.5	-6.7	2,196	-27.3
6	산업용전자제품	263	13.3	-1.1	276	30.5	4.9	1,786	17.0
7	기초산업기계	266	-11.2	16.2	233	-21.9	-12.4	1,748	-6.4
8	수송기계	215	-2.5	3.4	206	-3.0	-4.2	1,402	-4.9
9	플라스틱제품	199	3.5	4.7	198	0.4	-0.5	1,317	-5.2
10	산업기계	194	3.9	28.5	194	-0.2	0.0	1,230	-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 향) '16.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증가로 반전

○ '16.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531백만 달러로 전기비 229.8%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8.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전년동기비로는 22.4% 감소

- 건수로는 전기비 34.4% 증가

○ '16.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9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8.9%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4분기		2016.1분기		2016.2분기		2106.1-2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82 (34.4)	531 (229.8)	143 (-15.4)*	692 (-28.9)*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760 (13.9)	6,279 (48.1)	1,427 (9.8)*	10,520 (18.6)*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일본 투자회사인 글로벌브레인이 조만간 400억원 규모의 한국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
 - 이밖에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도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한국의 창업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 중
 - 이들이 한국의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급성장한 한국의 모바일 서비스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2016.8.23.한국경제)
- 기저귀용 부직포 생산 1위인 도레이가 한국 자회사가 임차하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에 60억 엔(약 671억 7300만원)가량을 투자하여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
 - 신공장의 가동으로 동사의 생산능력은 10% 증가한 연간 17만 1천 톤
 - 신공장에서 생산한 부직포는 한국 내 종이기저귀 공장 외에 중국에 있는 일본투자 기업에도 공급(2016.6.17. 닛케이)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對韓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6월~2016.7월)

□ 국내 기관

- 『일본 자동차업계 구조재편 전망과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년 8월23일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224>
- 『일본 지니계수 추이와 소득격차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2016년 8월13일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list.aspx?menuid=18
-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정책 시행 결정』 자본시장연구원, 2016년 8월11일
http://www.kcmi.re.kr/publish/weekly_list.asp?syear=2016&zno=1256
-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6년 8월5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NewRptView.action?boardBean.brdid=129128&boardBean.menuid=528&boardBean.rnum=2&menuNaviId=500&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가속도 붙는 일본의 성장전략』 LG경제연구원, 2016년 8월3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contents.asp?pyear=2016&ctype=g&grouping_seq=01040200_513

□ 일본 기관

- 『대일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 : 업종별 생산성향상 고용창출효과』 일본국회도서관, 2016년 8월24일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0188916_po_078704.pdf?contentNo=1
- 『집적의 경제·생산성과 품질향상』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8월1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nts/16e085.html>
- 『해외서 본 일본의 로봇 산업기술』 미쯔비시UFJ 리서치&컨설팅, 2016년 8월18일
http://www.murc.jp/thinktank/rc/report/global_report/global_1607_1.pdf
- 『TPP의 개요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쯔비시UFJ 리서치&컨설팅, 2016년 8월10일
http://www.murc.jp/thinktank/rc/quarterly/quarterly_detail/201603_17.pdf
- 『2016년판 JETRO세계무역투자보고 ; 광역경제권과 일본기업의 성장전략』 JETRO, 2016년 8월10일
<https://www.jetro.go.jp/news/releases/2016/41ec591029d31aca.html>
- 『환율로 결정되는 세계경제 : 엔고의 패자, 일본경제의 비극』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16년 8월9일
<http://group.dai-ichi-life.co.jp/dlri/pdf/macro/2016/naga20160808kawase.pdf>
- 『2016년도 경제재정백서』 일본내각부, 2016년 8월3일
http://www5.cao.go.jp/j-j/wp/wp-je16/index_pdf.html
- 『산업정책의 의의(1), (2)』 세계경제평론 IMPACT, 2016년 8월2일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682.html>
- 『라이프사이클 경제에서 최적 인플레이션』 일본은행, 2016년 7월29일
http://www.boj.or.jp/research/wps_rev/lab/lab16j03.htm/

2. 주요 경제 일정

<8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2	- 내각부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발표 * 사업규모 28조 엔
3	- 일본내각 개조 - 자민당 임원 인사
4	- '15, '16, '17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일본정책투자은행)
5	- 도쿄 23구 등 택시 기본요금 인하 실증실험
8	- 6월 및 '16년 상반기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10	- 일본 외무장관 필리핀 방문(~12일)
12	-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 3호기 재가동
15	- '16년 2분기 GDP 속보치 발표(내각부) * 전기대비 연율 0.2% 증가, 2분기 연속 증가
18	- 7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0	- 아베 총리 브라질 방문(~23일)
26	- 아베 총리 케냐 방문(~29일)
27	-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 - 일본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MRJ가 미국을 향한 이륙에 실패 * 28일도 트러블로 이륙 못했음

<9월 예정>

일자	주요 내용
4	- G20 정상회담(~5일, 중국)
11	- G7 보건장관회의(~12일, 고베시)
24	- G7 교통장관회의(~25일, 나가노현)
30	- 제11회 일본경제포럼(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30)